

#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7. 07. 11 [제336호]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합니다.

푸틴 공보담당관의 트럼프 평가, 식견 갖춘 노련한 협상가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정상들, 민스크협정의 포괄적 이행에 합의

아르메니아,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확대에 관심

카자흐스탄과 UN, 반 테러리스트 작전 행동규범 준비

아스타나, 시리아 분쟁해결 제6차국제회의 일정 조율

우즈베크 외무장관, 러시아 주도 지역안보체제 非가입 의사

투르크메니스탄, 라마단 기간에 수감자 1,000명 사면

아스타나 두산베 정기 열차 운행 시작



## 푸틴 공보담당관의 트럼프 평가, 식견 갖춘 노련한 협상가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의 공보담당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일부 미디어의 주장을 “착각에서 나온 쓰레기(delusional trash)”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나는 푸틴 대통령이 회담 후에 즐거워하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모르지만, 나의 느낌으로 보자면 그도 역시 만족하였다.”고 페스코프 공보관은 전했다. 그리고 페스코프 공보관은 자신은 두 시간 동안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의 개요를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페스코프는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며, 매우 단호한 협상가이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고 첨언하였다.

페스코프는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의 세 지역에서 정전에 합의한 독일의 회담에서 누가 이겼는가를 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푸틴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작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페스코프 공보관은 “우리는 이번 만남이 윈-윈의 성과를 낳은 회담이었다고 확신을 갖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봉구)

[기사 원본 보기\[2017-07-10, RT\]](#)

##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정상들, 민스크협정의 포괄적 이행에 합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종식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있는 가운데,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정상들은 민스크협정이 포괄적으로 이행되어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독일관리가 <RFE/RL>에 말했다. 그러나 세 정상간 회담의 성격은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이 없음을 시사한다.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자들 간에 시작된 싸움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촉발했다. 2015년 민스크협약에 따른 휴전협상은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함께 분쟁 종식을 위해 중재하였다. 그러나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전쟁에서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모스크바와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중무기 철수 및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권 회복을 포함해 민스크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다. 모스크바의 지원에 대한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군대와 무기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한다는 워싱턴, 브뤼셀, 우크라이나, 나토의 비난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크렘린은 2015년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해왔다. (기계형)

[기사 원본 보기\[2017-07-08, RFERL\]](#)





## 아르메니아,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확대에 관심

6월 23일, 아르메니아 총리 카렌 카라페찬(Karen Karapetyan)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앙 및 서아시아 사무총장인 손 오설리반(Seon O'Sullivan)이 이끄는 아시아개발은행 사절단을 영접했다. 총리는 ADB와의 협력이 '인상적'이며, 그 틀 내에서 총 11억 9000만 달러의 25개 프로그램이 아르메니아에서 이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카렌 카라페찬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통신, 에너지, 자본시장 개발 및 기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민간 부문에서도 ADB와의 협력 확대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손 오설리반은 아르메니아의 인프라 개선 과정을 환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DB는 교육 및 관리의 디지털화 부문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 간 협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되었다.(박영은)

[기사 원본 보기\[2017-06-23, ARMRADIO\]](#)



## 카자흐스탄과 UN, 반 테러리스트 작전 행동규범 준비

카자흐스탄과 UN은 국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테러방지 작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6월 22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14차 유라시아 언론 포럼(Eurasian media forum)에서 카자흐스탄 외무부장관 카리라트 압드라크마노프(Kairat Abdrakhmanov)가 발표한 것이라고 Kazpravda.kz가 보고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장관은 "국제테러방지 작전을 위한 아스타나 행동 규범은 다국적이며 국제적인 성격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사국들의 노력을 통합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UN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문서 작성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다. 그것은 다자간 성격을 지닐 것이다. 이와 함께, 압드라크마노프 장관은 "반테러 작전 중에 모든 나라가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장관은 UN총회 제70차 회의 연설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의 글로벌 반테러 연합' 형성 필요성을 제기했음을 상기했다. 2017년 초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UN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UN의 후원 아래 글로벌 반테러 연합(네트워크) 형성에 토대가 될 수 있는 행동규범 연구를 이미 제기했다. (이영형)

[기사 원본 보기 \[2017-06-24,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 아스타나, 시리아 분쟁해결 제6차국제회의의 일정 조율

시리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5차 아스타나 국제회의가 7월 4~5일 개최되었다. 압드라흐마노프(K.Abdrahmanov)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은 5차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6차 아스타나 회의가 2017년 8월의 마지막 주에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리아 분쟁 비확산지대(안전지대) 형성에 관한 공동실무그룹 회의가 8월 1~2일 이란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터키·이란, 그리고 시리아 분쟁의 당사자 대표자들이 참여한 금번 회담의 두 번째 날 다양한 수준에서 일련의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대표자들은 안전지대의 경계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UN 사무총장의 시리아 특사 스타판 드 미스투라(Staffan de Mistura)와 시리아의 UN 대표부 상임 대표 바샤르 알 자파리(Bashar al-Jafari)의 회동이 있었다.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스타나 회의는 이미 4 차례 진행되었다. 1차 회의는 2017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고, 2차 회의는 2월 15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3월 14~15일 있었다. 회담의 주요 결과는 감시체제에 따라 시리아에서의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내용에 쌍방이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4차 회의는 5월 3~4일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쌍방이 시리아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각서에 서명했다. (이영형)

[기사 원본 보기 \[2017-07-05,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 우즈베크 외무장관, 러시아 주도 지역안보체제 非가입 의사

압둘라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 주도의 안보 공동체에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기존의 정책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 점을 시사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모스크바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 군사동맹조직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6년까지 CSTO 회원국 자격을 중단하고 2012년에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후계자인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타슈켄트가 군사 동맹에 다시 합류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카밀로프 외무장관은 7월 5일에 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CSTO 재가입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무역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지역 연합체제인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 함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통해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중앙아시아를 전략적 관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3개국만 CSTO에 가입해 있다. (신보람)

[기사 원본 보기 \[2017-07-05, REUTERS\]](#)





## 투르크메니스탄, 라마단 기간에 수감자 1,000명 사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천 명 이상의 수감수를 사면했다고 투르크메니스탄 국영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라마단 기간에 지키는 축복의 밤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니야조프 전직 대통령부터 라마단 기간에 한 차례 비슷한 사면을 명한 바 있다. 권위주의적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주로 국가축일 전야에 일 년에 몇 차례 유사한 사면을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 있었던 그의 명령은 지난 2월 중앙아시아 국가의 날 전야에 828명의 수감자를 사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면은 정치적 동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심지은)

[기사 원본 보기 \[2017-07-03, RFERL\]](#)



## 아스타나-두산베 정기 열차 운행 시작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와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산베를 연결하는 기차가 처음으로 연결되었다. 6월 18일 두산베-아스타나 간 첫 번째의 기차가 아스타나에 도착했다. 카자흐스탄의 여객용 운송 서비스 회사인 ‘졸라우쉬라르 타시말리’ (Zholaushylar Tasymaly) 社は 6월 19일, 양국의 수도를 잇는 기차를 운행하기로 2017년 초에 양국 철도 당국자 간에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첫 번째의 정기 기차가 운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두 나라 사이에 기차가 연결됨으로써, 2017년에 아스타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에너지 박람회 엑스포(Expo)에 참여하는 숫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수도를 잇는 노선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을 통과한다. 이번 정기 기차는 두산베-아스타나 행은 목요일에 출발하며, 아스타나-두산베 행은 월요일에 출발하게 된다.(정세진)

[기사 원본 보기 \[2017-06-19, RFERL\]](#)

